

다기능화된 첨단 자물쇠로 집 지킨다

최근 홈시큐리티(Home Security)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정용 도어록(Doorlock)에 관한 특허출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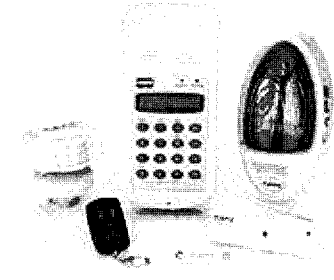
가정용 도어록 관련 특허출원은 1990년대 후반에는 연간 1백50여 건이었으나 2000년 이후에는 연간 2백50여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디지털 도어록 관련 특허출원은 1990년대 후반에는 연간 50여건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 이후에는 연간 1백여건 이상으로 급증하였으며, 이에 따라 디지털 도어록 관련 출원이 전체 가정용 도어록 출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동안 30%에서 약 50%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출원 증가는 최근 아파트, 고급빌라를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가 증가하고 절도범죄가 지능화됨에 따라 보안성이 높은 도어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고, 지문인식기술 등의 디지털 기술이 실용화됨에 따라 이를 접목한 새로운 방식의 도어록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00년에 들어서서 지문인식 디지털 도어록 등 새로운 방식의 도어록 기술과 이와 관련된 주요 보안기술 등의 개발에 힘입어 디지털 도어록에 관한 출원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도어록을 디지털화하는 것과 관련된 주요 기술의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향후 가정용 도어록과 관련된 출원이 전과 같이 단기간에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인터넷, 휴대폰 등을 활용한 가전기기 제어

기술 및 유비쿼터스 기술을 이용한 가전기기들의 통합화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도 도어록 원격제어기술과 디지털 도어록을 홈네트워크에 통합하는 기술 등 도어록을 다기능화, 지능화하는 기술에 관한 특허출원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최근 가정용 도어록에 대한 특허 출원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보안 전문 업체인 캡스가 선보인 무선 홈시큐리티 장치 'ADT 안전지대'.

일상 생활용품과 결합된 음주측정기 특허출원 활발

특허청에 따르면 일상 생활용품과 결합된 음주측정기 기술이 전체 음주측정기 관련 출원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의 음주측정기는 '39년 미국의 '롤라 N 하거'가 만든 '드링크 미터'라고 알려져 있고, 이는 내쉬는 숨에서 알코올 성분을 측정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고 이를 숫자로 표시해 주는 것.

최근 출원된 기술 내용을 살펴보면, 음주측정기를 차량에 설치하여 일정량 이상의 술을 마신 사람은 시동을 걸지 못하도록 하는 기술, 모바일 기기와 결합하는 기술, 시계·보이스 레코더 또는 핸드프리 장치 등에 음주측정 기능을 부

가한 기술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차량의 시동과 관련된 출원 기술내용을 살펴보면, 사람이 차량에 타는 것을 감지하여 음주측정기를 자동으로 동작시키는 기술, 음주측정기를 붙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기술, 자동차 열쇠에 음주측정기를 부착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 이상이면 열쇠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이 출원되고 있다. 미국 제너럴 모터스 자회사인 스웨덴의 '사브'사에서는 음주측정기가 부착된 차량을 2~3년 안에 판매할 계획이

다. 모바일 기기와 결합되는 기술내용을 살펴보면, 휴대폰에 음주측정

기를 장착하고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여 기지국에 보내면 이를 혈중 알코올 농도로 변환시켜 다시 전송해주거나, 위성시스템과 연결하여 택시의 호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기술이 출원되고 있다.

그밖에 기존의 커피 자동판매기와 같이 일정 금액을 투입하여 음주상태를 측정하는 음주측정 자동판매기 기술과, 음주상태와 비음주상태의 목소리를 비교하여 음주정도를 판단하는 기술도 출원되고 있다. 이중 음주측정 자동판매기는 최근 국내에서 상품으로 개발하여 이미 판매되고 있다.

인터넷 이용한 구인·구직 시스템 관련 특허출원 증가

2000년 이후, 취업 희망자와 구인 회사를 대상으로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인터넷을 이용한 구인·구직 시스템에 관한 발명이 꾸준히 출원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구인·구직 시스템 관련 발명은 99년 이후 1백26건으로 99년 2건, 2000년 43건, 2001년 27건, 2002년 24건, 2003년 30건이 출원되고 있는데 2000년을 정점으로 BM 관련 출원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다가 2002년 이후 연간 20~30여건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2001년 이후의 발명은 단순한 직업 소개를 탈피하여 구직자들의

경력관리 제공, 전문직 일자리 제공, 이력서 작성 서비스 제공, 화상 면접 제공 등 내용적으로 복잡·다양화되고 있다.

내용별로 분류하여 보면, 서버와 구직자 관련 DB 및 구직업체 관련 DB를 구비한 단순 구인·구직 관련 정보제공 시스템에 관한 발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자격과 경력 및 희망 보수에 적합한 구직업체 또는 구직자를 이어주는 시스템 관련 발명, 화상 면접 시스템 관련 발명 등이 지속적으로 출원되고 있으며, 예비 취업자들에 대한 진로 진단 시스템, 창업 준비자들에게 대한 창업정보 제공 시스템 등에 관한 발명 또한 계속 출원되

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 특정 계층이나 영어 강사, 헤어 디자이너 등 특정 직업군에 속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한 구인·구직 시스템도 출원되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구인·구직 시스템은 기술적 구성이 특별히 곤란하지 않은 분야로서 향후 회원제로 운영되면서 구직자가 원하는 직종·직장에 취업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회원을 관리해 주는 윈스톱 취업 관리 시스템이나 취업 후 지속적으로 자격·경력관리를 제공하는 재취업 및 전직 관리 시스템 등 참신한 아이디어와 다양하고 실용적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출원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상표·기술 도용으로 한국기업 큰 피해 입다

국내업체들이 중국의 상표 및 기술 도용 등 산업재산권 침해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내 피해업체가 중국 공안 당국에 위조상표 사용금지 등의 협조를 요청해도 실효성이 없는 '숨방망이' 단속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조직력이 취약한 부품 관련 벤처업체들은 사실상 일체의 대응을 포기한 채 방치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산업재산권 보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8월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벤처기업인 인터피온은 독자 개발한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했다가 중국의 한 업체가 이를 불법으로 복제, 위조품을 유통해 피해를 봤다. 이 회사 주성준 사장은 '중국 업체에 라이선스 비용을 받고, 인터피온의 마크를 붙이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현지 제조라인을 활용해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며 '반도체의 위조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어 교육지책으로 기술을 중국 측에 이전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벤처 대상을 탄 와이즈는 최근 실물 컬러프린터 기술을 침해 당했다. 중국 청와자광에 실물 컬러프린터 7백대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계약은 고사하고 회로도·소프트웨어 등 핵심 기술만 중국 측에 내주는 지적재산권 침해 피해를 당했다. 노래반주기업체인 금영도 중국 현지 에이전트가 금영 상표를 먼저 등록해 산업재산권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KETI 산하 베이징 소재 한중전자부품산업기술협력센터 서준호 센터장은 '중국강제인증(CCC)제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와이즈·금영처럼 IT 벤처업체의 산업재산권 피해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국내업체는 지적재산권 보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전자(KEC)는 지난해 중국에서 자사 상표를 붙인 2천만 개 이상의 반도체 트랜지스터 복제품이 유통돼 매출액 감소와 브랜드 이미지 손실을 입었다. 이 회사는 복제품 유통을 막기 위해 중국 내 상표권 등록 등을 추진 중이다. KEC 관계자는 상표권이 등록되면 위조품 생산업체에 경고장을 보내고 각서 등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지만 복제품 유통 근절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재산권 피해는 LG전자·GM 대우·CJ 등 대기업들도 겪는 등 전방위로 일어나고 있는데 LG전자는 중국에 등록된 LG상표를 중국 업체가 무단으로 USB 메모리와 DVD 플레이어에 부착, 유통한 것을 적발한 바 있다.

특허청 정인식 사무관은 '국내업체들이 산업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 먼저 상표 등의 특허를 출원해 권리를 찾는 것이 최선책'이라며 '피해를 막기 위한 마땅한 정부의 대응수단이 없어 분청 차원에서 한·중·일 특허 상호인증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 26호

3 특허청 제2회 발명 장학생 선발

4 짝퉁은 가고 '패러디 패션' 뜬다

5 효과적인 특허관리를 위한 10가지 전략

6 APEC 여성지도자 한국서 모인다

9 인물 FOCUS·정혜정요리학원, 정혜정의 한과전 '고방' 정혜정 대표

10 영동초등학교 발명공작교실

13 일본, 기술 특허료 흑자 급증

14 한국여성발명협회 회원사 발명품 가이드